

뉴스 & 뉴스

“불자 헌혈 가장 적극적”

다른 종교인보다도 불교인들이 헌혈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임상호씨가 최근 제출한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인식과 헌혈충동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구미 실적자지원센터 개소

구미불교사암연합회와 구미불교청년회,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지역 불교단체들은 남포사에 ‘구미실적노숙자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4일 오후 12시 개소식을 갖는다.

구미실적노숙자상담지원센터는 노숙자 수용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상담과 직업알선, 병원과 연계한 의료활동,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부산 달마선원 개원

해인사 원담암 부산 포교원 달마선원(주지 대운)이 10일 개원했다. 시내 중심의 건물 2층과 3층에 법당 40여 평과 달마보살을 위한 화실 30여 평이 우선 개원됐고 40여 평의 선방은 개원 앞두고 한창 공사중이다.

주지 대운스님은 “참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공간이 되도록 소박하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051)468-8503 부산=천미희 기자

천수암서 용머리상 발견

석탑 불사를 하던 암자에서 땅 속에 묻혀있던 석조 용머리상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시 중구 달성동 유가사의 산내 암자인 천수암 주지 금산스님은 96년 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용머리 형상을 한 길이 150cm가량의 석조물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련 ‘초록이’ 문예어

경북련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소재한 알뜰하게 ‘내 친구 초록이’(1층)와 ‘희망들기 열린학교’(2, 3층) 개소식을 갖는다. ‘내 친구 초록이’는 개인과 기업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네발 물건 등을 판매해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실시한다.

대학생 지리산 대탐사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1~24일 3박4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전국 대학생 지리산 대탐사’를 실시한다. 탐사 장소는 백무동→세석평원→장터목→천왕봉→치발목→조계골→대원사계곡이며 참가인원은 40명, 참가비는 3만원이다. 011-9558-4638 김재경 기자

위험 암반 제거공사 놓고 정암사-노원구 ‘갈등’

등산로 주변의 위험 암반 제거를 위해 일시 철거된 사찰이 복원과정에서 더 큰 위험을 안게돼 지자체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갈등을 빚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 97년 불암산등산로와 인접한 정암사(노원구 중계4동 산28번지 소재) 주위 암반이 대량으로 붕괴될 위험을 보이자 2억5천만원을 들여 암반 제거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암반 바로 밑에 있던 정암사는 공사 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기로 하고 사찰을 일시 철거했다.

정암사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반 붕괴의 위험요소가 많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정암사 주지 태형스님은 “공사

비가 2억5천만원이나 되는 큰 공사인데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만을 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실공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반이 풍화도가 심한 풍화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남아있는 암반의 균열만 가중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 녹지와 이성한 과장은 “공사 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진단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바위 정상부근의 위험요소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공사를 할 수 있지만 재시공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월 2일자로 노원구에 공문을 보내 공사마무리를 부족하게 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하자 보수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경숙 기자

마이산 탐군 관리자 교체 취소요청

중단협, 전북도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1일 전북도지사 앞으로 중단협 명의의 공문을 보내 마이산 탐군 관리자 교체 취소를 요청했다. 공문에서 정대스님은 “성보인 마이산탐사의 탐군을 일반문화재와 같이 취급하려는 귀 도의 금반 조처는 자칫 불교신앙을 폄하

하고 종교적 편향성이 깃든 처사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제하고 “마이산탐사의 탐군은 불교의 성보이며 신앙의 대상인 바 탐군은 마땅히 탐사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찰의 대중에 보존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예전처럼 마이산 탐사에서 관리를 맡아야 함을 강력 주장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통도사 자비원 세 노인의 망향 아픔

“오늘도 연락이 안왔나?”



최희복·심윤식 할아버지.

부산 통도사 자비원 노인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최봉학(80)·심윤식(71) 할아버지와 이선희(78) 할머니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에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신청을 해놓고는 북에 두고 온 혈육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6.25때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후 전향한 최봉학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황해도가 고향인 심윤식 할머니는 “하나뿐인 동생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인다. 이선희 할머니는 매일 법당에서 부처님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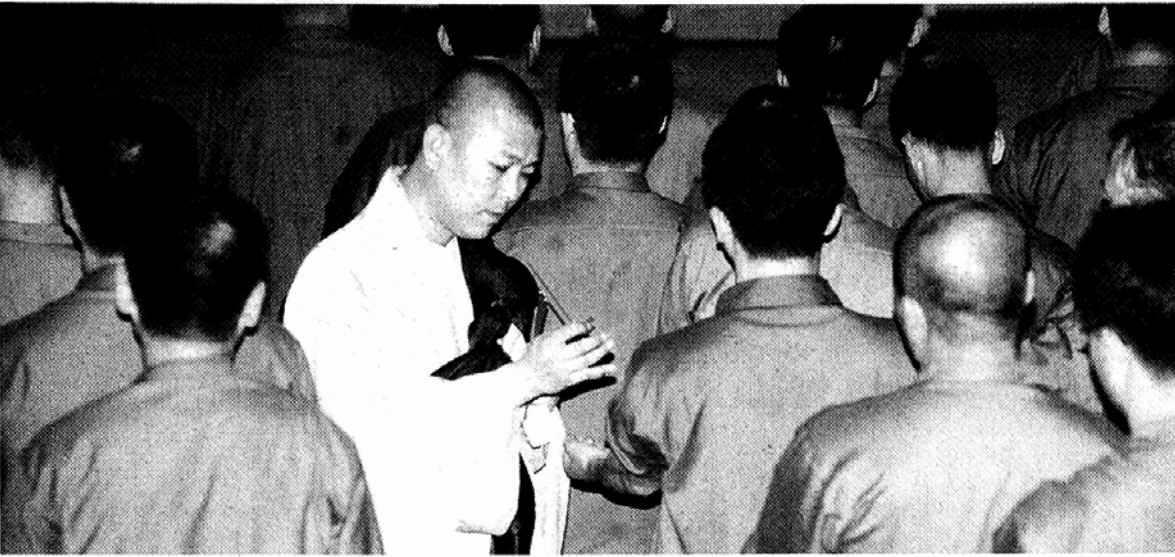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두레생태기행 환경휴가 10계명

두레생태기행(대표 김재일)은 최근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1백11명의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환경휴가 10계명’을 발표했다.

1.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2. 현장 주변의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질다.
3.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는다.
4. 현지 취사를 삼가고 지역의 향토음식을 먹는다.
5.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사이좋게 지낸다.
6. 현지의 동식물을 훼손하거나 갖고 오지 않는다.
7. 차량은 주차장이나 현장에서 가능한 먼 곳에 주차한다.
8. 아무데서나 함부로 세차를 하거나 용변을 보지 않는다.
9. 생태보전지역과 금지된 구역은 지킴다.
10. 단체행사라도 엠블라 확성기 사용을 자제한다.

(doobi@buddhopia.com)



연비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 이들은 보일듯 말듯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지난날의 과오를 묻고 참불자로 태어나겠다고 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참회 또 참회...법명대로 새 삶”

“부처님 전에 두손모아 참회합니다.”

14일 춘천교도소 강당. 푸른색 수의를 입은 3백여 재소자들이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수계법사로 연비를 받고 있다. 무엇인가를 발원하는 간절한 기도소리. 힘겨운 합창에 얼굴을 파묻은 애절한 수계식은 그렇게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부처님을 찾는 신심으로 채워졌다.

어릴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는 김현철(가명)씨. 스님이 향으로 오른쪽 팔에 연비를 하는 순간 눈물을 글썽인다. ‘불자로서

춘천교도소 재소자 300명 수계받던 날

거듭난 아들을 만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곳에 와서 처음 불교를 접했던 차태현(가명)씨는 ‘정명(正命)’이라는 법명을 받고 새로 태어났다. 성실하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사회생활을 해야한다는 뜻이 담긴 ‘정명’. 차씨의 굳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불교대학 통신과정을 통해 불교를 배우고 있는 문동환(가명)

씨는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후에도 석가모니를 정근을 계속한다. 오늘 이렇게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신심돈독한 불자인 매일공업육산가 김준환 대표의 원력으로 조계종이 마련한 이날 수계법회에 서는 TV 40대, 체육용품 등 위문품이 전달됐으며, 재소자 장기자랑과 반야연예인불자회의 위문공

연도 펼쳐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과거를 반성하고 경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내년 7월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이 가능해지므로 앞으로 불교계도 재소자 교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교정인연합회 춘천교도소 민찬수 지회장은 “평소 법회때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데 오늘은 3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동참해 수계를 받았다”며 기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opia.com)

지난 4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는 ‘국고로 문화재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범어사가 광해군 5년에 지어진 3백년 된 건물 일조현을 헐어내고 새 주지 집무실을 짓는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또한 이날 내용에는 공사비를 문화재청에서 부담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국고가 동원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도로 많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범어사측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고 분노했었다.

그러나 MBC에서 말한 대로 MBC가 소실된 건물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범어사 주지실 요사이건기’에 따르면 현재 개축중인 건물의 일조현은 32년 전인 성수스님 주지 당시 1976년에 지어졌던 회랑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 한 것.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범어사 대웅전 주변 건물의 개·보수시 전통사찰의 균형적인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목탁소리 천미희

MBC의 목북부담

데도 MBC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거나 정정보도를 내놓지 않았고 범어사도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범어사 일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언론 내용은 언제나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의 언론 모니터 강화와 아울러 방송 등을 통한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을 마련할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고의 전문가만이 그 진가를 아는 “메가플러스 명상기”

— 단 20분간 명상으로 3시간 업무를 한시간에 끝낸다!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 애용하고 지내던 분의 덕을 받듯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연속으로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결과, 지금은 불연속은 사라진 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로서도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놔두었는데 우연히 모 활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안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분에 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간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까지 말끔히 씻어 주었다. 소음의 경지에서 볼 때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메가플러스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어떤 심리학자는 비만이 되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는 데서 찾다고 하는데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반응에는 민감한 반면 자신의 내적(심리적) 공백상태를 어떻게 대처하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조건 습관적인 방어, 거부 등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이중, 삼중으로 받게 되고, 더불어 먹는 분위기에 휩싸여 방범모색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한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수행이면서 당연한 것이다. 안내책자는 메가플러스로 명상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처음 명상하는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현대사회의 공명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빠른 시간 내에 릴렉세이션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쁘신사이라고 믿고 싶다.”

〈미국 마이크로필사 제품〉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 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가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질 가능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오라진동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적용되며 이를 제감 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쿤달리나, 유체이탈, 무시간 실재경험을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메가플러스 색채 광안경

기본사양 : 녹색 광안경(재충전과 힐링)  
음 선 : 청색 광안경(릴렉세이션과 명상)  
청색과 빨간색 혼합 광안경(기공과 차크라)  
순색 광안경(최고의 통상경험과 시각화)

※ 전화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상담 (02)888-2142

<은담명상체학교실 중의 협장 > (031)742-9869

법회중 휴대폰 소음, 이제는 사라진다!

공공장소 전파차단기 레디오캡슐 SRC-300

법회 중 휴대전화 소음에 짜증 나신적이 있으니까?

법회 중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소리, “레디오 캡슐”이 반경 40M 내의 모든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여 정숙한 부처님의 도량인 법당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레디오 캡슐”이 정숙함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품질보증마크인 Q마크를 획득,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법당의 정숙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02) 408-2313 우체국 계좌번호 014241-02-118536

주식회사 자사 (JASACORPORATION)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5-2 예금주 : 한 경구

상담 및 구입문의